

운명

Schicksal

1. 어원 및 개념정의

운명 Schicksal 이라는 단어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를 가진 네덜란드 고어 schicksel에 어원을 두고 있다. 운명, 숙명이라는 뜻으로 독일어에서는 원래 Geschick 이 통용되었으나 17세기에 들어서 Schicksal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다. Schicksal 은 “숙명”,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우연히 닥친 일”, “필연성”과 같은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

운명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운명은 한편으로 한 개인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힘으로 파악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 본성, 또는 인간의 숙명으로서 어쩔 수 없는 천명으로 이해된다. 운명은 대부분 피할 수 없는 힘으로 간주된다. 또한 운명은 업보와 연결되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신의 예정과 관련된다.

2. 문학에 나타나는 운명 모티프

고대 그리스 문학, 특히 서사시와 비극에서 운명은 인간뿐만 아니라 신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제어하는 특별한 힘으로 나타난다. 그리스인들은 신의 섭리와 같은 운명에 순종함으로써 낙천적인 성격을 나타냈다. 그리스인들이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세 여신, 즉 인간의 탄생을 지배하고 생명의 실을 잣는 클로토, 인간의 일생을 조종하는 라케시스, 인간의 죽음을 관장하여 생명의 실을 끊어버리는 아트로포스를 생각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운명의 힘에 순종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되는 경우, 운명의 모티프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운명이라고 하는 외부의 힘에 저항하고 그 극복을 위해 싸우게 만든다. 그 싸움의 과정은 대부분 비극을 초래하고 인간은 신이 예정해 놓은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여기에는 신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이 연결되어 있다.

근대 문학에 들어와서는 운명은 신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행동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시각이 나타난다. 따라서 운명은 개인의 정신적 내면 문제로 다루어지고 개인의 성격과 연결된다. 또한 시대의 여건, 환경, 개인의 지위, 직업 등이 인간의 운명이 될 수 있다.

3. 서사구조

	내용
원인	신의 계시, 신탁
	주인공이 처한 시대적, 사회적 상황 (환경의 강요)
	주인공의 개인적 환경 (지위, 직업, 가족관계)
	성별 (남성 또는 여성으로 태어났기에)
	우연히 닥치는 사건
과정	자신에게 닥친 일을 운명이라 여기고 순종
	운명에 저항(신의 신탁을 무시, 신의 신탁에 저항)
	자신의 시대적, 사회적, 개인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싸움
	우연한 사건으로 인한 삶의 변화
결과	주인공의 의지와 달리 신의 신탁이 이루어짐
	죽음 (신탁에 따라/ 운명에 저항하다)
	주인공과 관련된 인물들의 파멸, 인간의 무력함, 연약함이 드러남
	삶의 변화에 순응, 삶의 변화에 좌절
	운명에 저항해 새로운 삶, 세상 개척

4.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발렌슈타인 Wallenstein』*

작가	프리드리히 쉴러 Friedrich Schiller (1759-1805)
장르	희곡
생성년도	1799
등장인물	알브레히트 폰 발렌슈타인: 총사령관 옥타비오 피콜로미니: 발렌슈타인을 배반한 부하 막스 피콜로미니: 옥타비오의 아들이자 테클라의 애인 테클라: 발렌슈타인의 딸 테르츠키: 발렌슈타인의 동서 일로: 발렌슈타인의 심복 버틀러 고든

* 안인희(역): 발렌슈타인, 청하, 1986.

4.1. 내용요약

1부: 발렌슈타인 진영

평범한 민중인 농부와 병사들이 발렌슈타인을 칭송한다. 유럽 각지에서 총사령관 발렌슈타인에게 모여든 병사들의 대화는 발렌슈타인이 강력한 인물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병사들은 힘이 강해진 발렌슈타인을 황제가 해임할 것이라 추측하면서도 그에게 충성하려한다. 발렌슈타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한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를 구분하지 않는 지휘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병들은 황제가 스페인 동맹군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들을 파견할지 모른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발렌슈타인이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자고 결의한다. 황제에 대한 병사들의 의견은 서로 다르지만 발렌슈타인에 대한 병사들의 충성심은 변하지 않는다.

2부: 피콜로미니 부자

병사들이 필젠 부근 진영에 집결해 명령을 기다린다. 발렌슈타인에 대한 병사들의 충성심과 믿음은 여전하고, 발렌슈타인은 거듭된 명령거부로 황제와 갈등 관계에 있다. 황제는 발렌슈타인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의 군대 일부를 스페인으로 파견하라 명령한다.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발렌슈타인은 황제를 내쫓기 위해 적국인 스웨덴과 결탁해야 한다. 의형제인 테르츠키와 심복 일로는 거사를 서두르고 발렌슈타인 장군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다. 1634년 1월, 발렌슈타인은 반란을 준비하기 위해 50여명의 장군과 연대장들을 필젠으로 불러 모은다. 한편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바 있는 옥타비오 피콜로미니는 발렌슈타인의 신임을 받으면서도 황제와 내통하는 첩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발렌슈타인을 대신하는 총사령관의 전권을 받고 발렌슈타인이 황제에게 반기를 들 때 그 전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스웨덴으로 가던 발렌슈타인의 밀사가 황제군에게 체포되고 발렌슈타인의 대역죄가 드러난다. 이 같은 정치관계와 별도로 옥타비오 피콜로미니의 아들 막스 피콜로미니는 발렌슈타인의 딸 테클라와 사랑에 빠진다. 발렌슈타인을 신봉하는 막스는 발렌슈타인이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는다. 막스는 발렌슈타인에게 그 문제를 직접 물어보고, 그 후 아버지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발렌슈타인을 따를 것인지 결정하려 한다.

3부: 발렌슈타인의 죽음

발렌슈타인은 협상을 위해 스웨덴에 보낸 자신의 밀사가 황제군에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된다. 황제는 발렌슈타인의 반란 증거를 확보한 셈이 된다.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발렌슈타인도 이제는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일로, 테르츠키, 테르츠키의 부인의 강력한 설득은 발렌슈타인으로 하여금 황제에 대항해 공식적으로 스웨덴과 동맹을 맺을 결심을 하도록 만든다. 막스는 발렌슈타인을 설득하여 반란을 막고자 하나 실패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막스는 테클라와 헤어진 뒤 발렌슈타인의 동맹군과 싸우다 자살한다. 옥타비오 피콜로미니는 비밀리에 황제로부터 총사령관에 임명되고 이 사실

을 모르는 발렌슈타인은 그에게 더욱 중대한 임무를 맡긴다. 이를 기회로 옥타비오는 발렌슈타인의 측근 지휘관들 거의 모두를 획책하여 그들이 발렌슈타인을 배반하도록 만든다. 결국 발렌슈타인은 맥도날드와 데브루에 의해 살해당한다. 발렌슈타인의 옛 친구 고든은 참혹한 결과를 한탄하고 발렌타인 살해 후 에거에 도착한 옥타비오는 황제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영주의 신분을 얻는다.

4.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야망과 주변 환경으로 인해 몰락의 길로 접어든 한 장군의 운명
- **서사구조:** 발렌슈타인은 거듭된 명령거부로 황제와 갈등 관계에 있다. 황제는 발렌슈타인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의 군대 일부를 스페인으로 파견하라 명령한다.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발렌슈타인은 황제를 내쫓기 위해 반란을 준비한다. 그러나 가장 믿었던 부하 옥타비오의 배반으로 발렌슈타인은 살해당하고 옥타비오는 그 대가로 영주가 된다.

원인	정치적 야망 무모함 맹목적 자신감 주변 인물들의 부추김 주변 인물들로부터 추앙 받는 주인공의 환경
과정	초기의 망설임 반란에 대한 결단 반대파의 음모 예상하지 못한 측근의 배반 운명에 맞선 무모함 적이 된 두 가족 자식들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결과	죽음으로 끝나는 개인의 운명 관련 인물들의 죽음 남은 인물들의 회한

5. 작품 목록

피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파우스트 Faust』 (1831)

클라이스트 Heinrich von Kleist: 『슈로펜슈타인 일가 Die Familie Schroffenstein』
(1803), 『펜테질레아 Penthesilea』 (1808)

헤벨 Friedrich Hebbe: 『니벨룽 족 Die Nibelungen』 (1861)

쉴러 Friedrich Schiller: 『발렌슈타인 Wallenstein』 (1799)

6. 연계 모티프

갈등, 신탁, 저항, 죽음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신탁 + 운명 + 사랑 + 갈등 + 결혼 + 죽음
스토리	신탁에 의해 한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죽을 것이라는 운명의 예언을 듣는다. 그 남자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지만 그 여인은 원수의 집안 딸이다. 남자의 집안과 여자의 집안 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남자는 운명에 저항하기 위해 여인과 결혼한다. 여인은 아이를 낳다 죽고 남자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다.